
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구연	논문분야	척추
논문제목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 후 발생한 신경학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영문제목	Analysis for Etiology of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 with neurologic deficit				
발표자	김두한	책임저자	강철형		
저자	강철형, 손은석, 박진현, 김두한				
기관명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서론 :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을 분석하여 신경학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을 분석하여 신경학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과 : A군은 총46명으로 남자가 12명, 여자가 34명이었고 환자의 평균 연령은 76세였다. B군은 총 890명으로 남자가 164명, 여자가 726명이었고 환자의 평균 연령은 75세였다. 골밀도의 T-score는 A군에서 평균 -2.1, B군에서 평균 -2.3이었다. 전방압박률은 A군에서 평균 45.7%, B군에서 평균 28.1%였으며, 후방압박률은 A군에서 평균 29.2%, B군에서 평균 15.5%로 전방과 후방 압박률 모두 두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골절된 추체의 수는 A군에서 평균 1.1개, B군에서 평균 1.3개로 두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나이, 골절부위, 골밀도는 두 군간에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에서는 골절된 추체의 수, 전방압박률, 후방압박률이 신경 증상 유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골절 직후 골절된 추체의 수가 적지만, 전·후방 압박률이 높은 환자들은 보다 철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cknowledgment :

골다공증, 척추골절, 신경증상
